

정오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우수 논문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정오 교수가 최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6차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정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3개의 복부 투관침만을 이용하는 새로운 복강경 위절제술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는 기존 5~6개의 복부 투관침을 사용하던 수술법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정교수는 이를 통해 위암 환자의 수술 후 흉터와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며, 수술 결과도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입증해 보였다. 이 수술법은 복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복부 투관침 수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의료비용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h@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가인회 영아보호소 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 여직원 모임인 가인회(회장 이주현)는 최근 광주시 동구 아동복지기관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이불 빨래 등 이웃사랑 나눔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전남사회복지모금회 구례나눔봉사단 총회



전남사회복지모금회(회장 허정)는 10일 구례를 우리회관에서 전남사랑의열매 구례나눔봉사단(단장 오덕순) 총회를 개최했다.

〈전남사회복지모금회 제공〉

상무1동 새마을부녀회 원룸촌 방범 활동



광주시 서구 상무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장복순) 회원 일동은 지난 9일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상무1동 원룸촌 일대에서 안심방범 활동을 벌였다.

〈상무1동 새마을부녀회 제공〉

“인종·문화 유연성 높이면 한국 더 발전하겠죠”

크리켓으로 향수 달래는 광주 방글라데시 유학생들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

외국 유학생 정착 돕고

융합하면 시너지 낼 것

전남대학교 공대 운동장에서는 휴일 오후면 어김없이 이색적인 경기가 펼쳐진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아이랑이가 꾸물거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너른 운동장 북판에서 공을 던지고 쳐내는 모습이 야구와 닮았지만 분명 다르다. 가로 '크리켓'(Cricket)이다. 크리켓은 길이 20m, 폭 3m 면적의 '피치'라는 공간에서 공과 수비가 이뤄진다. 직사각형 모양 피치 끝에는 '위켓'이라는 기둥이 있는데 이를 쓰러뜨리려는 '볼러'와 공을 쳐내서 지켜 내려는 '배트맨'의 경쟁으로 점수를 얻는다.

경기장에서는 쿤두(Kundu 34)씨와 이맘(Imam 32)씨가 크리켓이 낯선 한국 친구들에게 경기규칙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광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쿤두 씨는 좋아하는 경기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그가 광주에 왔을 때 크리켓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야구를 보고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의 종목의 상황은 판이었다. 의문이 생겼다가 방글라데시인, 스리랑카인, 인도인 등 크리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광주에 많은데 왜 경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때부터 유학생과 노동자들을 모아 경기를 시작했다.

크리켓은 원래 한 팀이 11명이다. 정식 경기를 위해서 선수 22명이 필요하지만 3명부

터 시작했다. 크리켓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어느덧 전남대, 조선대, 남부대 학생들까지 가세해 총 3팀이 만들어졌다. 화려한 유니폼도 값비싼 장비도 없지만 이들에게 크리켓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함께 땀 흘리며 고함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화합하는 행사였다. 쿤두 씨는 크리켓이 고함과 자신을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있는 방글라데시인이 100여 명인데 크리켓을 하면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광주로 유학은 대학생들, 평동이나 하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크리켓을 통해 하나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광주에 있으면서도 각자 따로 생활하느라 모이지 못했어요. 스포츠가 가진 힘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전남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취업에 성공한 쿤두 씨는 지난 2011년 첫 발에 이어 최근 둘째 딸의 아빠가 됐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전남대 경영학과 윤순석 교수 등 한국 친구들의 ‘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이맘 씨는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을 좋아했다. 그러나 치솟는 집값 때문에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며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 크리켓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선진국들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이걸 토대로 발전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피부색과 종교를



쿤두(왼쪽)씨와 이맘(오른쪽)씨는 유학생과 노동자가 크리켓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며 국적과 종교가 다른 이들도 스포츠로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진 이들이 함께 일하며 전에 없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야구에는 열광하지만 크리켓이나 다른 종목은 이렇듯 모를 때가 많아요. 결국,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

어요. 인재가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여건을 만들어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크리켓처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높인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영광 출신 한수산씨 전국고수대회 대령상

제35회 전국고수대회에서 영광 출신 한수산(26)씨가 판소리 고법 분야 대령고수부 대상인 대령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회와 전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한씨는 최연소 수상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최근 열린 대회에는 대령고수부 10명, 명고부 12명, 일반부 18명, 신인부 21명, 노인부 9명, 학생부 14명 등 모두 84명이 참여해 우위를 겨뤘다.

여덟 살 때 판소리를 시작한 한씨는 변성기가 찾아온 중학생 시절 잠시 활동을 중단했



다. 이후 광주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고 2학년이 되던 해부터 고법으로 전향했다. 전남도 무형문화재 29-3호 판소리 고법 문화재인 추정남 선생에게 판소리 고법을 이수했으며

만 일곱살 살 때 제9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에서 전국 최연소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현재 중앙국악교육대학원에서 국악교육을 전공하고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영광=이준용기자 jylee@kwangju.co.kr

광주전남병무청 ‘시민 구조’ 사회복지무원 이지혁씨 표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이동환)은 최근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승객을 구조하는데 기여한 사회복지무원 이지혁(23·오른쪽)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씨는 지난 2일 광주 지하철 삼촌역 승강장에서 발을 잘못 디터 선로로 떨어진 80대 노인을 20대 청년 2명과 선로로 뛰어내려 구조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은행, 고려인마을 어린이집에 공부방 선물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10일 광주시 월곡동 고려인마을 어린이집에서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2호점’을 열고 축하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은 고려인마을 어린이집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납장과 선반장, 학습용 필관, 책상 의자 그리고 단체복을 선물했다. 또,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은 치과과 피자 등 간식

을 준비해 아이들에게 나누주고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 김한진 본부장은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밝게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문정씨 차남 순갑군 정권기·박혜선씨 장녀 화영양=13일(토) 오후 5시 라페스타(옛 메리어트)2층 엘루체.
- ▲박영철(광산구 월곡2동 동장)·서삼덕씨 장남 정찬군 전병식·이복례씨 사녀 은아양=13일(토) 오후 5시 서구 죽봉대로 라페스타(옛 메리어트)4층 디아망홀.
- ▲유용중·김연숙씨 장남 명일군 운영석·손정숙씨 장녀 가영양=14일(일) 낮 12시 메종도보레노 5층 그랜드볼룸.

동창회

▲재광 순천 매산고 동문(회장 장진훈) 정기모임=16일(화) 오후 7시 첨단부대찌개 062-962-3338.

알림

▲홀타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남는 사랑입니다" 입양

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타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해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을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 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모집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지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조사 모

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만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요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

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군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을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차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헌신 합창단 모집. 062-675-5955.

부음

▲이형주씨 별세 준화·준길·준봉·복순씨 부친상=발인 11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양연임씨 별세 김승현·정현·현숙·미순씨 모친상=발인 11일(목)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봅니다 弔

201호 고김양애 님(여/82세) 子/子婦: 정관기/박혜선, 황기/김선영 女/婿: 정은경/유은갑, 미경/김대현, 선영/이환상 孫: 정태하/주은, 주혜, 주미, 주영 ●발 인: 6월 11일 ●장 지: 이양생동선영 ●연락처: 227-4381	301호 하이의만 님(남/78세) 子/子婦: 이정호/고여연, 정일/양해옥, 정택/전희경 女/婿: 이만희/이정우 未亡人: 김향기 ●발 인: 6월 11일 ●장 지: 보성 녹동선영 ●연락처: 227-4382
401호 고태학동 님(남/90세) 子/子婦: 한선원/김경애, 의철/윤동기, 점철/이영실, 영철/김준희, 연철/정순복 孫: 한상원 女/婿: 한선례/노재덕, 점례/김영현 未亡人: 김경남 ●발 인: 6월 12일 ●장 지: 장흥 용산선영 ●연락처: 227-4383	402호 고후현숙 님(여/84세) 子/子婦: 박만호/이영주, 민식/김주미 女/婿: 박영미/조재호 ●발 인: 6월 1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1호 고김용진 님(남/84세) 子/子婦: 김영민/이영미 女/婿: 김영숙/주기만 ●발 인: 6월 1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고택영수 님(남/77세) 子/子婦: 차만호/구정란, 현/김미화 女/婿: 차연희/조준관 ●발 인: 6월 1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